

김영록 “전남 의대 신설, 공모 통한 추천” 재확인

“5월말까지 신규 배정 200명 건의”
“강 시장 플랜B, 무안군 참여 의미”
유럽 순방 해상풍력 유치 등 성과
첫 유럽 전남관광설명회 큰 호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유럽순방 성과 및 도정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 전남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 ‘공모를 통한 추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3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모 방식을 놓고 반대 의견도 있고,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나 도지사가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임의로 특정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나중에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 의대 설치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약속, 정부부처 합동담화문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정해서’라는 전제조건상) 공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는 없고, 중앙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성립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화문을 냈고, 교육

부가 따로 공모하는 것도 아닌 이상 공모에 의한 추천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무한인내로 경청하고,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과도 더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5월 말까지 의대 설치 대학을 정해서 정부에 추천하는 것은 용역업체 선정과 공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소 4~5개월 소요되는 만큼 2025학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되는 5월 말까지는 전남 의대 신규 배정 200명을 건의하고 공모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월에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이 실패하더라도 당초 2000명 증원 규모 중 (대학별 조정 후) 최소 500명으로 예상되는 ‘남는 정원’ 내에서 계속 요구·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 “당시 용역은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용역으로 특정 지역, 특정 대학이 아닌 전남에 국립 의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지금과는 상

황도, 여건도 다르고, 공개 시 전체 틀을 보지 않고 유불리만 따져 용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B’ 발안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의미로 생각한다”며 “광주시가 민간·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는 생각을 무안군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는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함께 3자 회담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달 27일까지 7일간의 유럽 순방 성과 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유럽 순방을 통해 덴마크 베스타스와 머스크의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유치하고, 독일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대상으로 전국 첫 유럽관광설명회를 열어 전남의 맛·멋·흥을 알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순방 기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 세계 최정상급 해운회사인 머스크와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목포신항에 설립하는 투자협약(MOA)을 했다. 베스타스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해상풍력산업 중심지인 오덴세 항을 방문했다. 전남도는 오덴세 항을 롤모델 삼아 목포신항을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독일 연방상원의원이자 작센주 부총리인 마크 돌릭과 면담을 갖고 작센주와 전남도 간 경제협력 등 두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독일 베를린 마리티호텔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관광설명회에 참석해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특색 있는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전남의 맛·멋·흥을 대대적으로 홍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광주 1시간30분대 오늘부터 ‘KTX 청룡’ 운행

용산-광주순정... 최고속도 320km/h
호남선 하루 2회 급행고속열차 편성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KTX-청룡(EMU-320) 2편성이 1일부터 호남선과 경부선에 배치돼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KTX-청룡 31편성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2편성이 도입된 KTX-청룡이 내달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급행고속열차로 운영을 시작한다.

급행 고속열차는 호남선의 경우 용산을 출발해 익산, 광주순정에만 정차해 운행 시간을 용산-광주순정 1시간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현재 KTX 요금과 동일한 용산-광주순정 4만7100원이다.

앞서 KTX-청룡은 국토부가 차세대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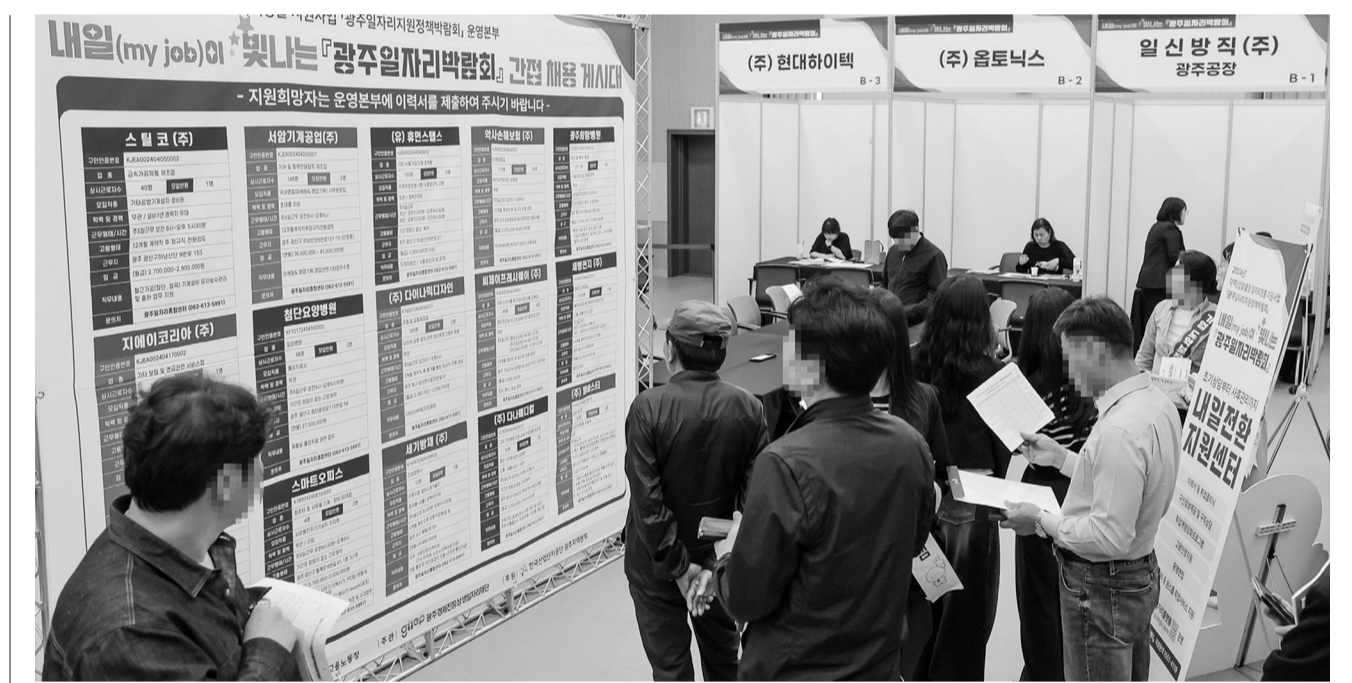
속철도 연구개발(2007-2015)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KTX에 적용된 동력 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력분산식은 앞차와 뒤차에 동력이 있는 동력집중식과 달리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열차를 말한다.

차량의 크기는 8량 1편성으로 길이는 199.1m, 차체폭은 3.15m이다. 최고속도는 320km/h로 KTX 산천의 300km/h보다 20km/h 빠르며, 300km/h 도달시간은 KTX-청룡이 3분32초로 5분16초인 KTX-산천보다 1분44분 더 빠르다.

열차 내 좌석은 515석으로 비슷한 크기의 KTX 산천과 비교해 136석, 산천Ⅱ 대비 105석이 많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내일(my job)이 빛나는 광주일자리 박람회 청년·여성·중장년 등 광주지역 구직자들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내일(my job)이 빛나는 광주일자리박람회'에서 1대1 현장 면접과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박람회에는 일신방직, 쿠광폴필먼트서비스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16개사가 참가했다. 나연호 기자

일일 각각 4회와 2회 급행 고속열차로 운행한다.

국토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 까지 KTX-청룡 31편성(코레일 17편성·

SR 14편성)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주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에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해산 및 채권 제출 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4월 26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연합회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8, 3층 (장천동)
청산인 고평주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